

#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25  
vol. 56

Autumn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www.caupharma.com](http://www.caupharma.com)





# Contents

## 중앙약대 동문회보 2025년 가을호

### 시론

- 3 선배들의 전통과 경험이 후배들의 무기로  
최영수(41회) 동기회장

### 동문회장 인사말

- 5 미래를 향한 연대와 혁신  
김정수(26회) 동문회장

### 동문회소식

- 6 화보
- 9 세대를 잇는 화합의 시간  
제53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및 동문 만남의 날 행사  
김만석(43회) 사무총장
- 12 같이 걷는 길, 함께 쌓은 추억  
중앙대 약대 여동문회 강화도 워크숍  
최진희(41회) 여동문회 부회장

### 동기회소식

- 14 기댈 수 있는 어깨와 함께 웃어줄 친구들  
29회 동기회 졸업 40주년을 맞이하며  
류현준(29회) 동기회장
- 16 눈이 저절로 감겨 뭉뚱해질 때까지 수다 잔치  
84학번 동기들과 제주도 환갑 여행  
강규선(32회)
- 18 30년의 세월, 다시 중대 약대라는 이름으로  
39회 동기회 졸업30주년 기념행사를 치르고  
한은경(39회) 동기회장

### 문학산책

- 20 산토리니 앞바다에 핸드폰을 수장하다  
에게해 선셋크루즈 투어의 여운  
박희웅(23회) 편집위원

### 약학도움이야기

- 29 지끈지끈 콧속, 편두통 migraine  
편집위원회

### 특별기고

- 35 약학연구자로서의 첫 발을 뗄 수 있게 해 주신  
고마운 선배님  
중앙동 장학금 수혜로 학업을 마쳤습니다  
정석원(67회)
- 36 배움의 기회에 감사드리며  
이승재(약학부 2학년)

### 학교소식

- 37 · 신원균 박사(약학 '59), 발전기금 1억원 기부  
· 약학대학 동문회, 중앙대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부  
· 약학대학 재학생들, 발전기금 기부  
· 우리 대학 대학원 동문회, 창립 50주년 기념  
· 장학금 전달식 성료  
· 진정주 박사, 모교에 발전기금 4억 100만원 쾌척

### 41 만평

### 42 회비내역

### 44 장학기금

### 46 편집후기

## 선배들의 전통과 경험이 후배들의 무기로

2000년도 의약분업 이후 25년이 지났다. 그사이 우리 약사사회에는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의 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듯하다. 하기가 지나고 보면 다 그렇기는 하지만 말이다.

과거에는 지식의 세계에만 안주해도 전문직들은 그럭저럭 먹고 살았다. 하지만 현실은 지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미지의 세계에서도 답을 구해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다.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직면한 여러가지 문제를 풀기가 어렵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해졌다. 쉽게 말하면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 열정과 의지가 오늘날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기본이자 최고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과거에도 지금도 최고의 인재양성 소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약사회 관련 혹은 동문회 관련 일을 하면서 더욱더 실감하게 되는 사실이기도 하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예기치 않은 문제를 풀어야 할 때 관행이나 관례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갈수록 복잡다단한 상황이 중첩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그것을 원만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예지력



최 명 수(41회)  
동기회장

을 현실의 해결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열린 자세와 지칠 줄 모르는 탐구정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덕목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오랜 전통의 밑바탕 위에 다양한 경험과 끊임없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일이다. 현실의 여러 상황에 부대끼다 보면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데 가장 근접한 것이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과거와 현재의 영광을 가진 선배님들은 후배님들에게 좋은 전통과 경험을 더 더욱 더 촘촘하게 전수해 주셨으면 하고, 후배님들은 이런 유산을 무기로 약사로서 다양한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도전하는 탐험가가 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 미래를 향한 연대와 혁신



김 정 수(26회)  
동문회장

존경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여러분,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지난 10월 19일에 열린 동문 체육대회의 열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단합했던 그날의 기억은,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에서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계절의 흐름을 느끼며,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올해 초 동문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동문 선후배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 덕분에 이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요즘 사회 전반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키워드는 단연 ‘AI’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해, 활용하는 일은 향후 약국 운영, 의약품 제조, 보건복지 행정,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의 제조, 의료기기 등 약사의 직무 범위와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변화는 또한 약사의 전문적인 권리와 권한을 발전시키거나 혹은 축소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AI 시대 흐름의 변화 속에서 약사로서의 직능을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대 약대 동문회가 중심이 되고, 중앙대 약대 동문회가 AI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동문들이 그간 70여 년 동안 축적해온 막강한 임상 경험과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한다면, ‘중앙약대’의 이름을 건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라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내부적 잠재력을 우리 동문회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다소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미 우리의 문 앞에 와 있는 변화입니다. 동문들이 마음을 열고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 동문회는 더욱 멋진 공동체로 성장할 것이며, 약사 직능의 사회적 위상 또한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더 큰 꿈을 품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동문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

3월 29일\_임시총회 및 초도이사회

4월 19일\_고문단회의

02

03

5월 8일\_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기금 전달식

5월 15일\_2025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04

05

5월 15일\_약학대학 교수 간담회







01

02

03

04

05

6월 15일\_ 여동문회 आयु회

6월 26일\_ 장재인 고문 제39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국민훈장 동백상 수상

9월 13일\_ 사무총장단 회의

9월 13일\_ 29회 동기회 졸업 40주년 기념 준비모임

9월 21일\_ 39회 졸업 30주년 기념식







01

02

03

04

10월 19일\_ 제53회 모교의 날 기념 체육대회 및 동문 만남의 날

11월 4일\_ 2025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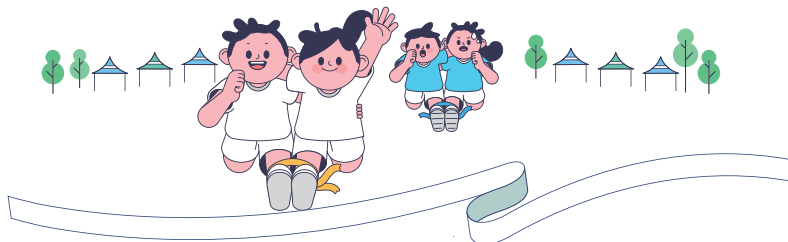
11월 14일\_ 중앙대학교 총동문회 박영달(27회) 동문 "자랑스런 중앙인 상" 수상

12월 4일\_ 여약사회장 제5회 약사봉사대상 수상





## 제53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및 동문만남의 날 행사



## 세대를 잇는 화합의 시간

이번 체육대회 준비는 개인적으로 어느 때보다 뜻 깊지만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53학번 선배님들부터 20학번 후배들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도전이었습니다.

김 만 석(43회)  
사무총장



각 세대가 추억하는 '체육대회'의 모습이 다르고, 관심사와 참여 방식 또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준비위원회는 수많은 회의를 거듭하며 세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행사에 구현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갔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올해 출범한 동문회의 방향과 목표를 실제로 구현해야 하는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동문 간 실시간 소통 강화'라는 목표 아래, 준비 과정에서부터 카카오톡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견 교환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멀리 떨어진 동문들도 행사 준비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젊은 동문 참여 확대와 세대 간 교류 증진'을 위해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포도윙과 네 컷 사진기는 젊은 동문들의 감각을 반영한 아이디어로,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웃는 모습 속에서 동문회의 새로운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오징어 게임' 이벤트는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즐거운 반응은 앞으로 더 많은 젊은 동문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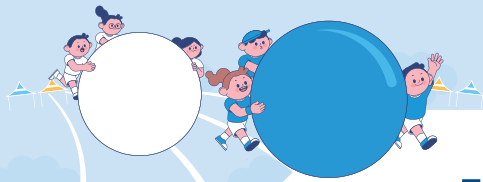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번 준비 과정 전반에는 ‘동문회의 재정적 자립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동문들의 후원과 협찬, 예산 운용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며, 향후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단지 하루의 행사를 넘어서, 세대를 잇는 이해와 협력, 그리고 동문 간의 따뜻한 연결 이야기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의 진정한 힘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동문들이 함께 웃고 뛰며 하나 되는 자리를 꾸준히 이어나가길 지원하면서 동문회 준비 후기를 마칩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종목별 수상내역

- 종합우승 : 34회 동기회
- 준우승 : 재학생팀
- 3위 : 36회 동기회
- 족구 : 1등 34회, 2등 재학생, 3등 36, 39회
- 피구 : 1등 36회, 2등 재학생, 3등 33, 39회
- 바둑 : 1등 허인회, 2등 김상혜, 3등 위혜주
- 윷놀이 : 1등 34회, 2등 14회, 3등 33, 13회
- 테니스 : 1등 35회 오창현, 34회 윤태섭  
2등 36회 정성훈, 34회 김혜진  
3등 37회 송형록, 36회 이태건



최 진 희(41회)  
여동문회 부회장



## 같이 걷는 길, 함께 쌓은 추억

### 중앙대 약대 여동문회 강화도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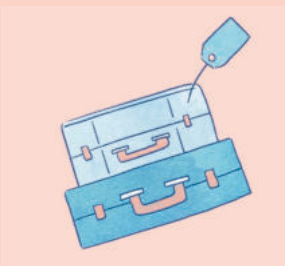
2025년 6월 15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여동문회(회장 김인혜)는 인천시 강화도로 워크숍을 다녀왔다. 서울역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해 화개정원, 점심 식사에 이어 보문사 방문으로 이어지는 일정이었다.

동문회에서 하는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설렘 반, 어색함 반이었지만, 김인혜 회장님께서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고 선배님들께서도 반갑게 맞아주셔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멀리 포항에서 새벽 첫차를 타고 와주신 선배님, 올해 졸업한 67기 후배 4명, 그리고 이번 워크숍을 위해 기부금을 보내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출발 전부터 기대감이 가득했다.

화개정원은 강화군 서쪽 교동도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의 연백군과는 불과 2~3km 떨어져 있는 곳이라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화개산 전망대 스카이워크까지 걸어가며 잘 가꿔진 정원을 구경하고, 지압 산책길 체험에 도전했다가 발이 너무 아파서 중도하차했는데, 끝까지 가신 선배님들도 많이 계셨다. 나보다 건강하신 것 같다. 예쁘게 조성된 나무, 나비 조형물 앞에서 졸업사진 찍듯이 다양한 포즈로 추억을 남겼다. 전망대에서는 바다 건너로 보이는 평야를 감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이 바로 북한의 연백평야였다. 흘렸던 땀이 시원한 바람에 날아가니 시원했다. 대학교 때 생약반에서 산을 올랐을 때의 성취감과 상쾌함이 떠올랐다.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오면서 느낀 점은 올라갈 때도 모노레일을 탔더라면 아름다운 정원과 꽃들을 가까이서 보지 못했을 거라는 깨달음이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흘렸지만, 직접 걸으며 보고 느끼는 것이 훨씬 좋으니 꼭 걸어서 올라가는 걸 추천한다.







점심은 '산당'이라는 한식당에서 했다. 이곳은 '방랑식객'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고 (故) 임지호 셰프가 운영했던 곳으로, 그는 자연의 맛을 중시하며 합성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주의 요리를 추구했다. 2021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철학은 여전히 이곳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요리들은 자연 약재 같은 건강한 구성, 균형 잡힌 맛으로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었고 식사를 마치고 나선 마음과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주었다.

이어 방문한 석모도의 보문사는 언덕 위 암벽에 조각된 마애불상으로 유명한 절이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 또다시 계단이 이어지는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믿음을 품고 모두가 허벅지를 쥐어짜며 끝까지 올라갔다.

손에 손을 잡고 석탑을 둘러싸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 중앙대 약대의 단합, 함께한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탑돌이도 했는데, 모두들 창피함을 무릎 쓰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동문회가 이렇게 유지되어 온 것은 늘 자리를 지켜주는 분들 덕분에임을 알게 되었고, 중앙대 약학대학 동문회는 언제나 모든 동문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것 또한 느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만나서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테니 놓치지 말고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류 형 준(29회)  
동기회장



## 기댈 수 있는 어깨와 함께 웃어줄 친구들

29회 동기회 졸업 4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29회 동기회가 졸업 4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그 시절의 기억들이 봄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약사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대학 문을 들어섰던 그때, 설렘과 두려움으로 허둥대던 우리의 모습이 엇그제 같습니다. 캠퍼스를 거닐며 꿈을 나누고,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제 때면 한마음으로 즐거워하던 그 순간들.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쏜 화살처럼 빠르게, 강물처럼 쉽 없이 흘러온 세월이 우리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으며 우리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약국 경영자로, 병원과 제약회사의 전문가로,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자로 각자의 자리에서 약사로서의 소명을 다하며 살아온 40년, 그 모든 것이 값진 여정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격동의 시대를 함께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급속한 변화, IMF 외환위기, 의약분업이라는 제도적 전환, 급변하는 의료 환경. 그 모든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는 약사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며,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환갑을 넘어선 지금,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은 무거운 짐을 진 여행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배우자로, 부모로 살아오며 우리는 그 역할의 무게를 한 걸음 한 걸음 짊어지고 걸어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약국을 지키며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 때로는 그 무게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인생의 풍파 앞에 좌절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기들과의 만남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며, 각자의 무게를 견뎌내며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시간은 새로운 선물입니다.

자녀들은 제 갈 길을 가고, 생업의 무게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무엇으로 정의되지 않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미뤘었던 꿈을 펼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진정한 내 이름으로 살아갈 때가 왔습니다.

여행, 음악, 그림, 봉사. 각자가 꿈꾸던 일들을 이제는 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온 보상이 아닐까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학창 시절 책만 펴면 졸음이 쏟아지던 제가 이제는 배움의 기쁨을 알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책을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인생 후반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던 삶과는 달랐지만, 뒤돌아보니 큰 탈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일 년에 몇 번씩 만나는 동�회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세월의 연륜이 새겨진 얼굴 속에도 여전히 청춘이 빛나고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술잔을 나누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들. 성공담보다는 힘들었던 경험을, 자랑보다는 격려를, 비교보다는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의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약국을 잘 운영하시는 분,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분, 건강을 되찾으신 분, 손주들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20년일 수도, 30년일 수도,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함께 걸어온 40년의 소중한 추억이 있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든든한 동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와 기쁠 때 함께 웃어줄 친구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남은 여정은 충분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 얼굴을 보며 안부를 나눕시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도 좋습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40년 전 같은 교정을 거닐며 꿈을 키우던 우리가 이제 인생의 황혼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함께 하며 우리의 우정을 이어갑시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우리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 규 선(32회)



## 눈이 저절로 감겨 몽롱해질 때까지 수다 잔치

84학번 동기들과 제주도 환갑 여행



시간은 정직하게 흘러서 20대의 풋풋했던 우리들을 60살로 만들어 놓았다. 누구는 아들을 장가보내고, 누구는 딸을 시집보내서 손자 손녀를 얻었으니 감개가 무량하다. 내게 여행이란 집안일의 연장선으로 식구들의 뒤통다꺼리로 제대로 즐기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나이 육십에 나만을 위한, 우리들만의 여행을 하게 되니 마음이 가볍다. 친구들과 제주도에서 1박 2일이라니! 회장과 총무의 입장은 마냥 우리와 같을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두 분의 봉사로 나머지 11명은 즐겁고 쾌적한 시간이 되었다.

그동안 혼자서 여행을 해본 경험이 전무해서 김포공항에서 경우, Y.B를 만나니 이렇게 반가울수가, 아, 이제부터 졸졸 따라만 다니면 되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편안했다. 제주 공항에 도착하자, H.I가 두 손 들어 환영해 주고, 다음 비행기를 타고 온 S.J, Y.S를 만나서 저녁식사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 도착하니 전날 도착한 J.E, J.B, J.H, S.K, S.J, J.I 그리고 포항에서 막 도착한 Y.M과 감격의 상봉을 하고, 흑돼지구이와 소주, 맥주로 제주에서의 첫 끼를 푸짐하게 먹었다. 공항에서부터 타고 온 우리들의 전용 버스로 숙소로 도착할 때쯤 때아닌 폭우가 쏟아져서 내일의 일정에 적신호를 보내는 건지 우려되어 모두 걱정의 마음이 가득했다. 제발, 비여! 멈추어다오!

숙소는 커다란 침대가 두 개씩 2인 1실로 배정받고, 13명이다 보니 할 수 없이 H.I가 혼자서 큰 침대 두 개를 모두 쓰도록 정리가 되었다. 아! “인생은 낯선 여인숙의 하룻밤이 대!”라고 스위스의 심리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이 그러셨나 어쨌나. 그러나 H.I는 인생을 생각하기 전에 혼자 자게 되서 무서웠을 뿐일 터. H.I, 미안하구네!

숙소의 세미나실에 모여 미리 준비한 환갑 케이크와 제주 감귤, 테라로 환갑상을 차리고, 파티의 왕답게 경우가 준비한 망토를 입고 왕관이나 티아라를 쓰고, 미스코리아들이



드는 요술봉같은 걸 들고 돌아가며 사진을 찍었다. 경우! 앞에 보고! 까꿍!

마치 돌잔치를 하듯이 우리 아들딸들이 봤다면 어이없어 실소를 했겠지. 우리 몸속에 숨어있던 어린이 바이러스가 마구마구 증식되어서, 다들 까르르 까르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7시 50분까지 짐을 싸서 로비로 내려오라는 명을 받고, 각자 배정된 방으로 갔는데, 나는 나의 룸메와 새벽 2시반 까지 눈이 저절로 감겨 몽롱해질 때까지 수다잔치를 벌렸다. 옆 방은 3시반까지 했더니까, 1등은 놓침. 경우! 그분들께 수다왕상을 하사하시길!

이제 아침잠이 무한대인 소녀 시대는 졸업해서, 무난히 7시에 기상해서 시간 맞춰 로비에 내려갔는데, 아뿔싸! H.가 안 내려왔네. 혼자 잠들어 늦잠자나 걱정하며 방에 가보려던 참에 총총 내려오네. 모두 32인승 버스를 타고, 아침 8시에 문을 여는 해녀 그림이 그려진 식당에 도착해서 고동미역국과 고등어구이로 아침을 먹었다.

아, 이게 가족이지! 얼마나 평온한 아침 식사란 말인가! 어쩌다 우리집 아이들과 여행을 하게

되면 늦잠자는 아이들 때문에 아침을 어른끼리 먹어야 하나 마나, 한식으로 먹자하면 빵으로 먹자하고, 도대체 통일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다. 지금은 누구 하나 고동미역국 말고 다른 것을 찾는 이가 없으니 얼마나 흐뭇한지.

식사 후 노형수퍼마켓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은 우리가 아는 수퍼마켓이 아니라 초현실적인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공간이었다. 옛 물건을 놓아서 과거로 가게하고, 빛의 커튼 사이로 걷게 하고, 무슨 체육관 같은 곳을 개조해서 빛으로 그림을 만들어 냈다. 아, 매일 집에만 있지 말고 이런 곳도 와봐야 하겠구나.

입구에서 감귤 모자를 쓴 테디베어 열쇠고리를 제주도에 왔다가는 기념품으로 우리집에서 제일 예쁜 두 사람에게 주려고 2개를 샀다. 가족 카톡방에 사진을 올리니, 우리 딸이 “엄마! 그 예쁜 두 명 중의 하나가 나일까?”하고 묻는다. “그럼 너지 누구겠니! ㅎㅎㅎ”

조금 흐렸던 하늘은 다행히 시간이 갈수록 더 맑아져서 오전 11시에 예약된 요트를 탈 수 있

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유감스럽게도 일행 중 Y.S가 노형수퍼마켓 체험 후에 먼저 가게 되었다. 40대로밖에 안 보이는 가장 젊어 보이는 친구로 단연코 1등을 차지했다. 제주 출신으로 현재는 부산에 등지를 틀었다. 졸업하고 처음 만난 건가. 앞으로 부산하면 떠오를 친구, Y.S야 잘 가, 항상 건강하고!

다들 요트 투어에 대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대만족이었다. 갑판에 앉아서 경치를 보는 것도 좋았고, 선원들이 낚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친구들이 작은 물고기들을 낚아 올렸다가 다시 놓아주었다. 커다란 것을 잡으면 회를 떠주기도 한하지만, 누구도 그런 건 잡지 못했다. 우리네 인생도 뭔가 큰 걸 잡길 기대하지만,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아닐까.

나는 작년 추석 무렵에 이석증을 앓아서 혹시 배멀미나 어지럼 증상이 생길까 두려워서 배 안에서 이리저리 다니지 못했다. 사실 나이 들면서 여행도 두렵고 운전도 두렵고 두려운 것 투성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늙어가는 걸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하니 두려움이 적어지고 즐겁다.

요트 체험 후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해서 3 테이블 12명의 만찬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아는 맛, 생선회! 그런데 그냥 생선회가 아니라 조금 더, 아니 훨씬 더 싱싱하다는 것을 체감했다. 제주도 소주도 곁들이고, 점심에 낚시를 마시는 건 최초의 경험이었다. 놓고 먹고 마시고 수다 떨고, 이번 여행에 S.J가 없었다면 진짜 재미없었을 거다. 가이드가 S.J의 고등학교 6년 후 배로, 제주도 사투리로 둘이 대화하는 것만 들어도 신기했다. 제주에 대하여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는 마음이 역력하다. S.J! 고마워!

식사 후 경우가 짜놓은 뽁뽁한 일정으로 족욕장에 도착해서 족욕을 하며 피로를 풀었다. 예전에도 제주에서 족욕 체험을 했는데, 아기가기하고 개운했다. 족욕 후에는 빵 카페로 이동해서 커피와 다양한 빵으로 이른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아, 아까운 시간들!

서둘러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생각해 보니 어제 저녁 6시쯤 제주에 도착해서 오늘 저녁 7시반 비행기니까 제주에 25시간 정도 머물렀나 보다. 너무 짧은 일정이라 비행기 값이 아까울 지경인데, 사나흘 정도는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참석했던 친구들이 경우에게 70세 기념으로 해외여행 추진을 요구했고, 경우가 반드시 추진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모두 참석할 거야, 그치? 이 글을 읽는 이번에 참석 못한 친구들도 사정이 허락한다면 다음 여행에 꼭 참석해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자.

끝으로 바쁜 일상에서도 이 모든 여행을 계획하고 예약하고 준비해준 '84학번 영원한 과대표 경우'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하며, 경비 관리에 수고해준 J.E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 전한다.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다가 또 만나자!

한은경(39회)  
동기회장



## 30년의 세월, 다시 중대 약대라는 이름으로

39회 동기회 졸업30주년 기념행사를 치르고

지난 9월, 한강변의 리버사이드호텔에서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39회 동기회 졸업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35명의 동기들과 참석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함께 해준 많은 동기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이날 행사는 따뜻한 우정과 자부심이 넘치는 자리로 빛났습니다.

특히 김정수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식전 행사로는 중앙대학교 응원단 '후라씨'의 열정적인 공연이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 약대 합창단 '칼라무스'의 감동적인 무대와 약대 댄스 동아리 '유니커스'의 역동적인 공연이 이어지며, 학교에 대한 애정과 동기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전국 각지에서 모인 35명의 동기들과 참석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함께 해준 많은 동기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이날 행사는 따뜻한 우정과 자부심이 넘치는 자리로 빛났습니다. ”

동기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약사로, 연구인으로, 교육인으로서 묵묵히 걸어온 지난 30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서로의 삶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언제나 마음속에는 '중앙대 약대인'이라는 공동의 뿌리가 있었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찬란하던 20대 초반을 함께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서로를 응원하고 만나면 단지 그 이유만으로도 반갑고 보고 싶은 소중한 사이, 바로 '동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동기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1,000만원의 장학금을 약대에 전달하며 후배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는 39회 동기회가 함께 걸어온 30년의 시간 만큼이나 값진 나눔이자, 중앙대 약대 선배로서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세월은 흘렀지만 우리의 우정과 학창시절의 추억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도 39회 동기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후배들과 학교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든든한 동문으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 산토리니 앞바다에 핸드폰을 수장하다 - 에게해 선셋크루즈 투어의 여운

2024년 6월, 빅아일랜드 킬라우에 아이키(Kilauea Iki) 분화구를 중단하고 하와이 여행에서 돌아온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짐을 꾸린다. 나름 여행의 고수라거나 어디로 못 떠나 환장할 일이 있었던 한 맺힌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시간과 돈이 남아돌아 남들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티를 내는 것도 더욱 더 아닌데 굳이 이 염천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관광객이 6명이나 사망했다는 바로 그 그리스로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희용(23회)  
편집위원

1일차 (6/20)

인천-아테네-수니온곶-아테네

약 12시간의 비행 끝에 전세기 직항편으로 아테네에 착륙, 이곳 온도는 34℃, 93°F라는 기장의 작별 인사가 인상적이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는 1896년 제1회 근대올림픽에 이어 2004년 올림픽이 개최된 유서 깊은 도시이다. 에게해의 파도와 서양과 중동문화가 뒤섞여 있는 아테네는 그러나 여름철의 숨 막힐 듯한 더위와 대기오염, 악명 높은 교통 혼잡 등으로 관광객들을 그리 만만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 신들의 밭도 끝도 없는 싸움의 역사, 그리스 신화

그리스 도착 신고식을 위해 포세이돈 신전이 있는 수니온곶(Cape Sounion)을 먼저 찾는다. 수니온곶은 우리로 말하자면 바다 쪽으로 뺄수록 튀어나온 땅끝마을에 해당하는 곳이다. 유럽 문명의 발상지인 크레테 지역에서 배가 아테네로 들어오는 초입이라 가장 먼저 보이고 출항할 때 마지막으로 보고 나가는 곳이라고 한다. 자주 접하지 못하고 이름으로만 들었던 에게해(Aegean Sea)가 드디어 등장했다.

가이드는 설명 초장부터 미노타우루스가 어찌고 에우로파 공주가 저찌고를 신명나게 읊어댄다. 예상했지만 신화의 나라라는 그리스 역사의 이면은 신들의

끝도 없는 싸움과 승리자와 패배자의 유장한 역사가 때로는 신화의 모습으로 때로는 역사적인 현실로서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

그리스와 로마는 세계 여행의 마지막 코스라는 말이 번뜩 스쳐 지나갔다. 어차피 집중해서 듣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일찌감치 포기했다. 그리스 갔다 왔다고 12신의 이름을 족보대로 읊조릴 수 있을 거라고 꿈도 꾸지 마라. 그저 중간중간 우리가 너무도 익히 들어온 제우스의 이름을 듣는 안도감으로 다른 신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먹지 않기로 했다.

### 포세이돈 신전, 에게해 풍광보다 바람이 먼저 달려들다

수니온곶은 바람의 언덕이라는 의미이며, 에게해에 면한 깎아지른 절벽 제일 꼭대기에 포세이돈(Poseidon) 신전이 우뚝 서 있다. 황량한 언덕 위 몇 개의 기둥으로 남아있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신전은 그러나 그 의미를 되새기기도 전에 맹렬한 바람으로 혼을 쑥 빼놓았다. 몰아치는 거센 바람에 모자고 스카프고 선글라스고 품 잡다가 날리는 건 순간이며, 심지어는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였다.

20유로인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는데 본전 어찌고 할 염도 내지 못하고 속으로 ‘포세이돈 영감 성질 사납구나’ 라고 투덜대며 언덕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바람 심하지 않은 날 일몰 무렵에 찍은 안내 사진만이 ‘붉은 황혼녘 바다, 숨쉬기조차 어려운 아름다움’ 이란 문구와 함께 무심히 위로로 보내주었다.

2일차 (6/21)

아테네-아라호바-델피-메테오라

### 신들이 택한 세상의 중심, 델피

신탁의 도시, 아폴론 신전이 있는 델피(Delphi)로 간다. 우리에게 영어식 발음인 델포이로 알려져 있으나, 베네치아 가서 베니스 찾는 우를 범하지 않기로 한 기억을 되살린다. 그리스 신화에서 자주 언급되는 신들의 거처인 올림푸스산 만큼이나 중요하게 거론되는 파르나소스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고대 도시이다. 아테네에서 20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 아침 챙겨 먹고 버스로 두어 시간 부지런히 달려야 할 거리다.



델피로 가는 관문에 있는 작은 마을 아라호바(Arachova)가 있다. 차에서 내릴 일 없이 델피로 가기 위해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뜨면서 키스신을 촬영한 종탑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이후 한국인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반드시 들러 사진 한 컷 찍고 가는 명소로 바뀌었다고 한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끝도 없이 달려 델피에 도착, 유적지에서 나온 유물들을 보존하는 고고학 박물관을 먼저 찾는다.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기원전에서부터 로마시대까지 시대별로 보존된 유물들 중 대지의 배꼽이라는 옴파로스, 전차를 모는 청동 마부상, 여사제 피티아의 삼발이 술 등이 전시되어 있다. 비교적 형태가 온전히 남아있는 낙소스의 스팅크스가 눈길을 끈다. 대체로 스팅크스라 하면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있는 것을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원래 스팅크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이고, 이집트에 있는 것은 후대 그리스인들이 이 괴물을 이름을 따 붙인 것이라고 한다. 배움에는 끝이 없구나!

고대어로 창자 또는 자궁이라는 뜻의 델피는 지구의 중심(배꼽)

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그리스에서도 지형상 중심에 해당되는 곳이다.

어느 날 제우스가 올림푸스에서 무료하게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다가 자신의 상징인 독수리 두 마리를 각각 동쪽과 서쪽 끝에서 동시에 날린 후 만난 지점을 돌로 표시했는데 이를 배꼽돌(옴파로스)이라고 한다. 지구의 배꼽에 해당되는 곳이 델피로, 은연중 그리스가 지구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내세운다.

지금은 신전 앞 원래 있었다는 자리에 복제품이 올려져 있고, 조금 전 박물관에 서 본 것이 진품이다.

델피는 신탁의 땅이다. 거기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자 지배자이며 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가 등장한다. 이 어마어마한 수식어 외에 제우스는 올림푸스 최고의 바람둥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다.

아니다 다를까 언젠가 제우스가 본색을 드러내 레토라는 여인과 바람을 피워 쌍둥이를 임신했다. 분노한 본처 헤라가 누구도 해산할 장소를 제공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로 인해 해산처를 찾아 온갖 곳을 떠돌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던 레토는 당시 거의 버림받았던 가난하고 척박한 땅 델로스에서 겨우 허락을 받았다. 신들로부터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던 그곳 사람들은 더 잃을 것도 없다고 판단하여 해산처를 제공해 준 것이다.

레토는 7일 동안 고통받다 종려나무 아래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출산했다. 신의 술 벡타르와 신들이 먹는 음식

인 암브로시아를 먹고 태어난 지 며칠만에 성인이 된 아폴론이 예언을 행하기 위해 델피에 도착한다.

이후 아폴론은 인간에게 신의 뜻을 전하는 신탁의 신이 되었고, 델피가 신탁의 장소로 된다.

델피는 원래 대지의 여신 가이아를 모시던 장소였는데, 아폴론이 가이아 신전을 지키던 거대한 구렁이 피톤을 활로 쏘아 죽이고 신전의 주인이 되었다. 아폴론은 슬픔에 잠긴 피톤의 아내 피티아를 신전의 사제로 삼고 사람들에게 신의 뜻을 전하기 시작했다.

당시 신탁을 주관하던 여사제는 오늘날의 마취가스에 해당하는 성분이 바닥에서 연기처럼 올라오면 그것에 취해 일종의 방언처럼 신탁을 쏟아냈다. 그러면 밖에 있던 남사제가 그것을 해석





해서 의미를 파악하는데, 애매모호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니 무한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기저에 깔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델피 유적의 핵심 아폴론(Apollo) 신전은 지금은 6개의 기둥과 축대 부분들만 남아있지만, 신전 건축 당시 38개의 웅장한 도리아식 기둥이 있었다고 하니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신전 내부의 벽이나 기둥에 쓰여져 있던 비문 중 유명한 것이 소크라테스의 말로 알려진 ‘너 자신을 알라(그노티 세아우톤; γνῶθι σεαυτόν)’이다. 소크라테스가 아폴론 신전에 왔다가 이 문구를 보고 스스로의 편견과 무지를 깨닫고 본격적으로 문답법을 설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아폴론 신전을 지나 더 위로 오르면 상당히 큰 규모의 델피 극장을 만난다. BC 4세기에 건설된 극장은 4년마다 열리는 피티아 제전(Pythian Games)이 열리는 곳이다. 일종의 음악축제로 고대 그리스 4대 축제 중 하나다. 35단의 관람석이 있어 5,000명이 동시에 음악이나 연극 등을 관람할 수 있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보존상태가 온전해 지금도 여름철에 음악 연주회나 연극 공연이 펼쳐진다고 한다.

정작 델포이는 그리스가 아닌 프랑스 고고학자가 발굴한 연유로 관광객 중 프랑스인 비중이 높다고 한다.

원래 신전이 있던 곳이 지진으로 인해 땅속에 묻힌 채로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위에 마을이 건설되었다. 발굴이 진행되면서 마을 전체를 이전하게 된다. 당시에는 살던 터전을 버리고 갈 수 없다고 반발이 심했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은 그 신전 보러 오는 관광객들 덕분에 먹고 살게 되었다.

3일차(6/22)

메테오라-레르모필레-아테네

### 천상의 수도원 메테오라

압도적인 경관을 자랑하는 천상의 수도원 메테오라(Metéora)는 근처 마을인 칼람바카의 주민이 2,000명 정도에 불과해 정작 인프라가 몹시 열악하다. 공향이 있을 형편이 안 되어 그곳을 보러 가는 수많은 관광객들은 여지없이 버스나 기차로 접근해야 한다. 아테네에서 쉬지 않고 4시간, 중간에 휴게소라도 들리면 5시간은 잡아야 하니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오늘날 세계 10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 하나로 불리는 메테오라는 공중에 떠 있는 수도원이라는 뜻이다. 멀리서 바라보면 게으름뱅이 배불뚝이 아저씨가 누워있는 거대한 바위산 기암절벽 꼭대기 위에 수도원이 있다. 원래는 바다 밑바닥이었으나 퇴적이 계속되다가 지각 변동으로 6000만년 전 갑자기 융기되어 바다가 밀려 나가면서 흩어 사라지고 기암절벽만 남았다.

11세기 이후 중세 수도사 또는 은둔자들이 속세를 떠나 일반인들이 쉽게 근접할 수 없는 수련 장소를 찾다가 이 지역의 깎아지른 듯한 기암절벽 위 바위틈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에 터잡기 시작했다. 수도자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같이 미사를 지내자고 해서 수도원 공동체로 형성되었다. 14~16세기에는 24개의 수도원이 번성했으나 현재는 6곳의 수도원이 남아있다.

규모가 가장 큰 대메테오라 수도원을 비롯하여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발람 수도원, 007 영화 촬영지인 트리니티 수도원, 니콜라스 수도원과 스테파노스 수녀원, 로사노 수녀원 등이 있다. 수녀원에서 빵을 구워 수도원에 공급한다.

6개 수도원을 다 도는 관광상품이 있으나 우리는 그중 대메테오라만



방문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사진 찍기에 최적의 뷰 포인트에서 잠시 잠시 시간을 갖고 방문을 대신하기로 한다. 대 메테오라는 거대한 바위산에 지그재그 모양으로 계단을 만들어 오르내렸는데, 바위를 뚫어 동굴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다리 위에 있는 꼭대기 기증탑에서 망이 달린 줄을 도르래로 연결시켜 사람이나 물자를 오르내렸다고 한다.

### 테르모필레 전투

테르모필레(Thermopylae) 전투는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 사이에 벌어진 페르시아 전쟁 중 페르시아의 2차 그리스 원정 때의 대표적인 전투 중 하나다. 대중에게는 영화 ‘300’ 이 흥행하면서 많이 알려졌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다리우스 황제가 그리스를 침공했으나 살라미스 전투에서 무참히 패퇴했다. 이후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복수하러 다시 쳐들어온다. 도시국가들의 연합이 결성되었으나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으로 아테네 연합군이 떠나고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왕을 중심으로 남은 300명으로 최후까지 항전한 기록이다. 테르모필레는 지형상 아테네로 들어가는 관문이며 마차 두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아 진격을 막기에 적합한 지형이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선혈이 낭자한 강렬한 전투신을 연상하겠지만 결국 중과부적, 최후의 300인으로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꿈꾸는 것은 어림없는 일. 후방에서 시간을 벌고 전투준비 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자연 전술이 목적인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한다.

그날 저녁 숙소인 아마리아 호텔 바에서 마치 발칸반도 출신 보스처럼 생긴 주인과 마주했다. 더운 날씨에 많이 걷고 해서 피곤한 몸을 위로하고 싶어 샴페인 한 병을 주문했다. 정작 직원이 작은 병을 갖다주길래 한 잔씩 가볍게 마실 게 아니라 큰 병으로 한 병을 원한다고 했다. 주인이 다시 와서 온전한 한 병 맞느냐고 확인하는 걸로 봐서 이 동네에서 호기롭게 샴페인 한 병 시키는 게 그리 흔한 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쨌든 먼저 얼음에 채운 샴페인을 갖다주더니 잠시 후 시키지도 않은 과일 안주를 잔뜩 서비스로 가져온다. 의외로 기대했던 만큼 과일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던 우리에게는 최적의 안주였다. 그것도 서비스임에야 무슨 말을 더할까? 아마 이번 여행에서 제일 흔쾌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한다.



4일차 (6/23) 아테네-산토리니(아크로티리-이아)

### 에게해의 빛나는 섬 산토리니

오늘은 한국인들에게 그야말로 동화 같은 정경으로 알려진 산토리니(Santorini)로 간다. 피레우스항에서 고속 크루즈가 아침 7시에 출발하는데 선착순 입장이다 보니 관광객이 몰리는 철에는 배 타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 된다. 새벽 4시 반에 모닝콜이 와서 어젯밤에 대충 꾸러놓은 캐리어를 단단히 여미고 길을 나선다. 아침 먹을 여유가 없어 호텔에서 싸주는 도시락을 하나씩 받아 버스에 오른다.

우리는 안다. 아니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국회의사당 야경처럼 산토리니의 이미지를 아주 비슷하게 떠올릴 수 있다. 예능이나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세뇌당한 이아 마을의 그 환상적인





풍경을 말이다.

기본적으로 산토리니는 화산섬이다. 그리스에는 2,500여 개의 섬이 있는데 에게해 아래쪽으로도 200개가 있다. 산토리니는 본토에서 200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페리로 9시간이 걸리던 것이 요즘은 성능 좋은 쾌속선으로 4시간이 남짓이면 닿을 수 있다. 원래 전체가 원형의 섬이었으나 화산 폭발로 5개의 섬으로 나누어져 있고 울릉도 크기 정도라고 한다.

본질이 화산섬인 만큼 척박한 땅인 데다 바람이 워낙 많아 작물이 자랄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여기에 강한 햇빛이 가세하면 포도 재배에는 이상적이다. 곳곳에 포도밭이 있고 와인 산업이 융성했다. 단, 워낙 바람이 많고 햇빛도 강해 우리가 아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마치 땅

바닥에 또아리 틀고 앉은 뱀처럼 가지를 칭칭 감아 향아리 모양으로 키울 수밖에 없다.

그림 같은 풍광을 기대하며 배에서 내리지만, 커다란 절벽 밑에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접안시설이 황량하기조차 하다. 시작부터 온통 절벽 길을 굽이굽이 차로 이동한다. 안전벨트는 상시로 해야 한다. 도로도 좁은 데다 교통수단이 넉넉지 않고 오토바이가 많고 들고양이나 개가 무시로 출몰하는 바람에 시도 때도 없이 급정거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스 도착 첫날 가장 인상적인 것은 포세이돈 신전에서 마주쳤던 무지막지한 바람이었다. 산토리니도 예외가 아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분다. 그냥 빨래를 널었다가는 다 날아가니 반드시 집게로 집어놔야 한다.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원래 주민에 맞춰진 것이라 턱없이 부족하다. 하루에도 서너 번, 주 3회 정전이 되기도 한다. 도로 사정도 열악하다. 신호등도 따로 없으니 여행 기분에 취해 함부로 길을 건너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 산토리니의 폼페이, 아크로티리

본격적으로 산토리니를 둘러보기 전에 어찌 보면 이번 여행의 기대 이상의 소득이랄 수 있는 청동기 시대 주거지 아크로티리(Akrotiri)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에프하리스토(Ευχαριστώ; Thank you)!

고고학자가 아닌 우리로서는 화산재에 파묻혔다 발굴된 폼페이만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산토리니에서 화산분출로 뒤덮인 유적지 발굴이 계속되고 있다. 기원전 2000년부터 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프레스코화,

도자기, 가구, 고급 배수시설(수세식 화장실?), 3층 건물 등 고도로 발달된 도시의 유적을 볼 수 있다. 폼페이와 확실하게 다른 점 하나는 특이하게 여기서는 인공이 발견된 적이 전혀 없다고 한다. 워낙 지진이 잦은 지역이라 경보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상황 발생시 미리미리 대피한 탓으로 추측이 된다.

고고학적 고증을 거쳐 이곳이 화산재로 덮인 유적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마리나또 교수에 의해 실제로 발굴에 성공했다. 이후 연구를 위해 수시로 산토리니를 오가다 아름다운 풍광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늘기 시작했다. 근자에는 전설 속의 잃어버린 도시인 아틀란티스의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 광고 속 그 장소, 이아 마을

산토리니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새하얀 집들로 이루어진 마을에 파란 색깔의 둥근 지붕일 것이다. 산토리니의 진주라고 불리는 이아(Oia) 마을은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명성에 걸맞게 규모는 작지만 럭셔리한 고급 호텔들이 절벽에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낮의 풍경은 말할 것도 없고, 해질 무렵 점점 붉게 물드는 섬의 풍경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곳이다.

오늘날의 이아 마을을 둘러본다는 것은 깃발들의 전쟁터와 같다. 좁은 골목길은 관광객들로 미어터진다. 사진 명소마다 대기줄이 어김없이 이어진다. 덥고 사람에 치이고, 그런데도 모두 불평 한마디 없이 씩씩하게 사진을 찍어댄다. 우리 일행 중 광주 처녀 3총사는 예측을 잘못하여 의상 선택에 실패했다고, 인생샷 다시 찍어야 한다며 갈마춤한 복장으로 다음날 기어코 다시 방문 하더라. 직접 와서 보니 우리처럼 사진 찍는 일에 목숨걸 일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적어도 이아 마을에서 죽기 살기로 사진 찍어대는 처자들의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생긴다. 그 참!

### 그림같은 풍경의 피라, 피로스테파니, 이메로비글리 마을

영화 '맘마미아'를 기억하십니까? 산토리니섬의 허리에 위치한 피라(Fira) 마을은 산토리니의 수도로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잠시만 걸어도 옆 마을이나 해변으로 도달할 수 있다. 동화 속 마을처럼 아름다운 카페와 레스토랑이 밀집되어 있고 곳곳에 기념품 상점이 자리 잡고 있다. 해지기 전 지중해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 앞에 넋을 잃을 수도 있다.

피로스테파니(Firostefani)는 피라 마을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별개의 마을이나 어차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굳이 구분하려 애쓸 이유는 없다. 피로스테파니라는 말 자체가 '피라의 왕관'이라는 뜻으로,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피라와는 또 다른 환상적인 모습을 기대해도 좋다.

피라 마을에서 도보 20~30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작은 마을 이메로비글리(Imerovigli)는 레스토랑이나 상점 같은 편의 시설이 적어 오히려 조용하고 아늑하다. 산토리니 하면 떠오르는 새하얀 건물과 조약돌로 이루어진 골목이 어김없이 나타난다. 해발 300m로 산토리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에게해의 아름다운 경관과 석양을 감상하는 명소로 으뜸이다.



### 쿠소안노폴로스 가문의 와이너리 겸 박물관

이름이 다소 어려운 쿠소안노폴로스(Koutsogiannopoulos) 와인 박물관은 지하 8m, 길이 300m의 동굴에 자리 잡은 독특한 위치의 와이너리 겸 박물관이다. 와인 박물관에는 5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쿠소안노폴로스 가문에서 20년 이상에 걸쳐 조성해 놓은 와인 역사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 산토리니의 포도나무 재배 역사 등 1660년부터 1970년까지 산토리니 와인과 와이너리에 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전시물과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디오니소스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와인, 그중에서도 산토리니의 특산품은 단연 와인이다.

와인 박물관을 둘러본 뒤에는 와인 테이스팅을 진행한다. 한 무리의 관광객들마다 별도의 공간에서 미리 세팅해 놓은 네 가지의 산토리니 와인의 독특한 맛을 즐기고 나면 제아무리 쇼핑에 인색한 여행자일지라도 지갑을 열지 않을 수 없다.

산토리니에는 15개의 와이너리가 있는데, 와인을 뜻하는 vino와 지명인 santorini가 합쳐져 vinsanto라는 브랜드가



탄생했다. 보통 수확 후 2주간 햇빛에 더 건조 후 착즙하여 달달한게 특징이다.

그리스는 고대 유적지에서도 와인이 흔히 발견되는 유서 깊은 와인 생산국이다. 화산 폭발로 척박해진 산토리니는 곡식을 경작할 수가 없었고 그 흔한 올리브 또한 재배하기가 어려웠으나 포도 재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빈산토 와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와인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산토리니 와인은 국내에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념품,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다.

### 포세이돈의 저주, 선셋크루즈 투어

점심을 먹고 나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으라는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그래도 좋겠지만 우리는 평소에 꿈도 꾸지 못했던 특별 관광을 하기로 결정했다. 말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던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 안 그래도 환상적인 산토리니에서의 일몰을 바다 한가운데서 직접 볼 수 있다는 선셋크루즈를 선택했다.

다국적 관광객이 탑승하며 수영, 가무, 음주를 즐기는 크루즈라는 광고 문구가 조금 촌스러우면서도 정감이 간다. 우리 일행에 더해 인도계로 보이는 가족이 오늘의 동행이 되었다.

테레지아 섬, 화산섬 주변을 세일링하고 레드비치 및 화이트비치를 구경하다 비교적 안전한 세 개의 포인트에서 20분 정도씩 수영할 시간을 준다. 익숙한 원형 튜브가 아니라 요즘 여행 프로그램에서 간간이 보이는 1m 정도 기다란 막대기처럼 생긴 것이 의외로 부력을 주어 몸에 요령껏 걸치고 바다로 들어간다.

나처럼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들어간다. 수영 못하니 아예 안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언제 또 에게해에서 수영할 기회가 있겠느냐, 바닷물에 몸만 담그고 나와도 본전 빼는 일이다' 라고 꼬드기는 바람에 호기롭게 들어가 보기로 한다.

여기서 대형사고를 쳤다. 두 번째 장소에서 수영 흉내를 내고 나와 가이드가 찍어주는 사진에 기분이 한껏 고조된 탓인가. 문득 가방을 점검해 보니 핸드폰이 보이지 않는다.

요트가 크지 않아 따로 짐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그냥 의자 구석에 던져두고 필요할 때 넣었다 뺐다 하던 차 분위기에 휩쓸린 탓인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 가방이 열린진 상태에서 사진 막 찍다가 제일 위 쪽에 던져둔 것 같은데 그때 요트가 파도에 요동치며 바다로 빠져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이런! 그리스에 도착하자마자 달려간 포세이돈 신전에서 바람이 너무 부는 것 아니냐고 속으로 몇 마디 중얼댄 것을 이 영감이 고깝게 들었던 모양이다. 그 깊고 깊은 에게해 바닷속으로 핸드폰이 수장된 것이다.

그 외중에도 한참 신이 나 있는 일행들 기분을 가라앉힐까 봐 걱정이 앞섰다. 최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 내 불찰이요 부주의로 발생한 일이니 내가 마음을 비우겠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했으나 사람 마음이 그럴 수는 없는가 보다.

선장의 협조를 얻어 계속 나오던 음악도 끄고 심지어는 주변 요트에 무전을 쳐서 반라의 비키니족들이 광적으로 몸을 흔들던 곳까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다시 신호를 보냈으나 감감무소식. 대범한 체, 신경 안쓰는 체 하려던 것은 아니었으나 도무지 방법이 없다고 인지가 된 이상 계속 인상 찌푸리며 일행의 기분을 잡칠 일은 없어야 했다. 미안하고 고맙다는 두 마디로 일행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러나 김이 빠진 채로 억지로 세 번째 스폿으로 뛰어들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를 데리러 온 아테네 가이드에게 크게 불편을 끼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했지만, 아마 본사와 교신을 한 듯 심지어 공항가는 버스 탑승 시간에 좀 늦게 나타나 시간 없다고 무조건 짐부터 실으려던 리무진 기사와 가이드 없이 그냥 안타겠다는 일행들 사이에 가벼운 실랑이까지 있었다.

공항에 도착, 경찰에게 분실 신고를 했으나 알아보겠던 호기와 달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소식이 올 김새도 없었다. 다른 경찰이 나타나면 자기들끼리 몇 마디 하다가 역시 그대로,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 가이드에게 내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일행에 신경쓰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정리를 했다.

가이드 말이 애네들 일도 안 하거니와 느려 터져서 기대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공물까지 바쳤으니 더 큰 액운을 막을 액땀한 것으로 이해를 하기로 했다. 단,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산토리니로 들어올 때는 고속 크루즈를 탔는데, 다시 아테네로 나가는 것은 공항을 이용하기로 했다. 코로나 이전 국내선 공항은 시골 버스 정류장 수준이라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불만지수도 높아졌다고 한다. 코로나 시기에 개보수가 진행되어 지금은 꽤 괜찮은 수준이라고 한다.

공항은 역시나 만만디. 거의 출발시간이 되어 가는데도 게이트는 오픈되지 않았고, 몇 명이 탄 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탑승은 시작되지 않았다. 이 인원이 다 타려면 최소한 1~2십 분은 걸릴 텐데, 참으로 느긋한 인생들이여 축복받을 지어다.

19X4인승 단발 프로펠러 기종. 기내에서 꼬리 쪽으로 짐을 수동으로 싣는 게 고스란히 보이고 에어컨도 작동되지 않았다. 출발해서 동력이 가동되어야 에어컨이 작동되는 듯이 보였다.

아테네 공항마저 적체로 지연 도착, 이후 일정은 대충 꼬여버렸다.

### **하버뷰 레스토랑, 눈과 입이 맛있어 지는 시간**

피레아스에서 가장 그림 같은 곳에 위치한 천연항구 미크로리마노항에서 멋진 풍경과 그릴에 구운 생선요리를 맛볼 수 있다. 말 그대로 하버뷰를 감상하면서 전통 술 우조 한 잔을 곁들이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우조(Ouzo)는 그리스의 전통술로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아니스라는 향신료가 가미되어 독특한 맛을 보여 준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인에 따라 호불호가 명확하게 드러날 맛이다. 무색의 우조는 보통 알코올 함량 40% 정도인데, 물을 타면 우유빛깔로 바뀌는 게 눈길을 끈다. 우리의 소주격에 해당되는 그리스의 국민 술이니 꼭 먹어봐야 한다는 선배들의 당부를 기꺼이 이행한다.





## 지끈지끈 콕콕, 편두통 migraine

편집위원회

두통(headache)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증상으로 사람들 대부분이 경험하며, 환자들이 신경과 외래를 찾는 가장 흔한 증상이기도 하다. 특히 편두통(migraine)은 단순한 두통을 넘어서 신경혈관성 질환(neurovascular disorder)으로, 한두 번 약을 먹는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는 삶의 질(QOL)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만성 질환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정의

편두통은 통상 4~72시간 동안 중등도~중증의 발작적인 두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통증 이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빛이나 소리에 과민한 증상을 동반한다. 주로 머리 한쪽(편측성)에서 발생하지만 양측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 종류

국제두통질환분류에서 편두통은 크게 이상 조짐, 즉 전조(aura)가 동반되는지에 따라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과 전조 증상이 없는 편두통으로 나뉘고,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이 지속되면 만성 편두통이라고 한다. 그 외에 뇌경색이나 발작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는 복합 편두통 혹은 주로 어린이에서 두통 없이 소화기 증상이나 어지럼증이 반복되는 삽화증후군 등이 있다.

#### ▶ 전조 증상이 없는 편두통 (migraine without aura)

전체 편두통의 약 70~75%를 차지하며 전조 없이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통증이 4~72시간 지속되고, 한쪽 또는 양쪽 머리에 나타난다. 통증은 박동성으로 뛰는 듯하고, 강도는 중등도 이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

상이며, 터질 듯 하거나 쑤시고 쏟아지는 듯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일상의 신체활동에 의해 악화되고, 메스꺼움이나 구토, 빛과 소리에 민감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 ▶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 (migraine with aura)

편두통 환자의 약 25~30%를 차지하며, 통증이 나타나기 5~60분 전에 시각, 감각, 언어 등의 전조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전조(aura)란 보통 두통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번쩍이게 보이거나 까만 점이 보이는 시각 전조가 가장 흔하고, 감각 전조나 실어증 형태의 언어 전조도 있다.

#### ▶ 만성 편두통 (chronic migraine)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이 있고, 그 중 8일 이상은 편두통성 두통이 있을 때 진단한다. 대개 전조 없는 편두통으로, 편두통 빈도가 증가하면서 만성 편두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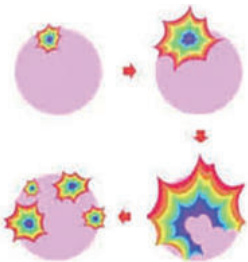
### 증상

#### ▶ 주요 증상

- 박동성 두통: 중등도~중증의 통증이 한쪽 또는 양쪽 머리에 나타난다.
- 소화기 증상(메스꺼움 및 구토): 소화기 증상은 편두통 진단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인데, 편두통 환자의 90%는 메스꺼움을, 50%는 구토를 경험한다. 체했을 때 머리가 아프다면 편두통을 의심해 볼 수 있다.
- 광과민증(photophobia): 눈부심, 광선 공포증
- 음향과민증(phonophobia): 음성 공포증

#### ▶ 전조 증상

- 시각장애: 번쩍이는 빛, 지그재그 선, 형상을 갖추지 않은 섬광, 일시적 시야 결손
- 감각장애: 저림, 얼얼함, 촉각 과민성 혹은 감각의 감소
- 언어장애: 말이 어눌해짐(실어증 혹은 부전실어)
- 뇌간장애: 운동실조, 의식 소실, 복시, 이명 혹은 청력 소실, 현기증, 말더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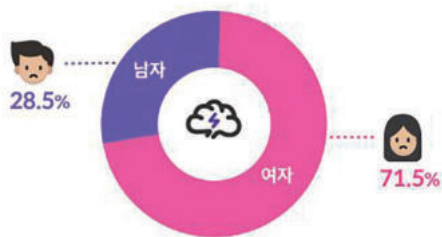
편두통의 전조 증상(시각장애)



### 유병률

편두통의 유병률은 약 12~15%로 여성에서 15~20%, 남성에서는 3~7% 정도로 보고된다. 에스트로겐과 같은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3배 정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사춘기 이전에는 5~6%이며, 사춘기 이후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도 높아져 30~40대에 가장 높고 55세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편두통 환자 성별 비율(2019년; 심평원)

편두통 환자의 상당수가 30~40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 연령대가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한 시기이므로 삶의 질 저하 및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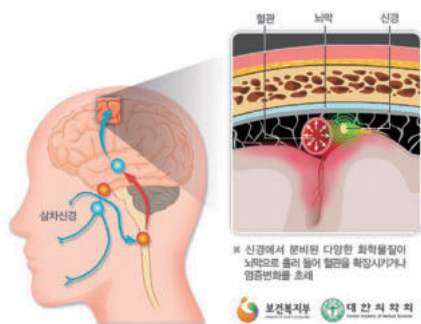
## 원인

편두통의 정확한 원인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 **유전적 요인:** 가족력 있는 경우 발병률이 높다(50% 이상)
- ▶ **신경학적 메커니즘**
  - 혈관 가설: 머리쪽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되어 혈관이 확장된 결과 뇌에 있는 신경섬유를 압박함으로써 두통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 신경 가설: 삼차신경혈관계(trigemino-vascular system) 과민반응으로, 신경말단으로부터 혈관작용성 펩타이드가 유리되어 삼차신경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혈관확장과 염증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 세로토닌 가설: 편두통 발작이 진행되는 동안 혈장 세로토닌 및 5-HT 수치가 급속하게 떨어지며, 세로토닌 주 대사산물인 5-hydroxyindolacetic acid의 요로배설이 증가한다.
- ▶ **유발요인:** 편두통 유발요인은 다양하며, 어떤 요인이 편두통을 유발한다고 해도 회피하거나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 ▶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

대부분의 환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편두통을 유발한다고 생각한다. 스트레스가 편두통 발병의 선행요인이자 유발요인이며, 더 나아가 편두통 만성화의 위험요인이라고 주장한다.
- ▶ **음식**

대표적으로 와인과 맥주가 편두통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에탄올, 히스타민, 티라민, 아황산염 등이 두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커피, 차, 콜라에 든 카페인도 급성기 편두통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주 섭취하면 오히려 편두통을 악화 또는 유발할 수 있다. 치즈에 함유된 티라민, 아스파탐, MSG, 핫도그, 햄, 베이컨에 함유된 아질산염과 산화질소도 편두통을 유발한다고 추정된다.



편두통의 발생원인

## ▶ 호르몬 변화

월경 관련 편두통 환자의 2/3는 월경기에 편두통이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된다고 한다. 경구피임약을 복용했을 때 두통이 호전되는 경우는 드물고, 약 50%에서 악화된다. 임신 중에는 편두통 환자의 80%에서 두통이 50%이상 호전되거나 없어지지만, 일부에서는 임신 중에 편두통이 시작되거나 악화되기도 한다.

## ▶ 약물

혈전예방제 cilostazol은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저용량부터 증량하는 것이 좋다. 협심증 치료제 nitroglycerin 혹은 발기부전치료제 sildenafil도 편두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조 증상이 없는 편두통의 진단기준

|                                               |
|-----------------------------------------------|
| <input type="checkbox"/> 두통 발작이 5회 이상         |
| <input type="checkbox"/> 두통이 4~72시간 지속        |
| 다음 중 2가지 이상: <input type="checkbox"/> 일측성     |
| <input type="checkbox"/> 박동성                  |
| <input type="checkbox"/> 중등도 이상 강도            |
| <input type="checkbox"/> 일상활동에 의해 악화          |
| <input type="checkbox"/> 구역/구토 혹은 광과민/음향과민 동반 |



▶ 생활습관

생활패턴의 변화가 편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식생활, 수면, 운동 등 생활습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금식이나 과식이 편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가 바람직하다. 대개 편두통 환자는 수면의 질이 낮는데, 피로와 수면장애는 편두통의 중요한 유발인자이며, 수면 부족과 수면과다 모두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숨찬 운동이나 등산 중 편두통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수분을 적절히 섭취하면서 운동량을 조금씩 늘리는 것이 좋다.

▶ 기후 및 온도 변화

추위나 더위가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위나 더위 자체보다도 기온의 변화가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진단

편두통은 특별한 혈액검사나 영상검사 없이 문진과 병력 청취를 통해 진단하는데, ICHD-3 진단 기준(국제두통분류 제3판 기준)을 적용한다. 두통의 발생 시기, 두통이 발생한 부위, 특성과 강도, 지속시간, 빈도, 경과, 유발요인, 완화요인 등이 진단에 필수적이다.



관련 질환

편두통 환자는 다른 질환이나 증상도 같이 호소한다. 뇌혈관, 대사 및 내분비계, 뇌전증, 정신건강, 통증, 수면, 소화기, 면역 등의 동반 질환이 많다. 특히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동반되면 치료 효과가 낮고 만성 편두통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으므로 항상 동반 질환을 고려해야 한다.



치료

편두통을 겪으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직업, 가사, 학업 능력도 떨어진다. 따라서 빠른 치료로 고통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 약물치료

◆ 급성기 약물치료

· 비특이적 약물

비특이적 약물은 편두통을 포함한 다양한 통증에 진통 효과가 있는 약물을 말한다. 복합 진통제는 쉽게 구할 수 있어 과용이나 남용의 우려가 높다. 복용 횟수에 주의하고, 가급적 단일 성분의 일반진통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일반진통제

미국두통학회 지침에 의하면 급성기 편두통 치료에 효과가 확인된 진통제는 acetaminophen, aspirin, diclofenac, ibuprofen, naproxen 등이다. 국내에서는 acetaminophen 단독 혹은 복합제가 가장 흔히 사용된다. 복합제는 acetaminophen/caffeine에 항염작용이 있는 etheizamide 또는 isopropyl antipyrine을 첨가한 것이 흔히 쓰인다. 또한 acetaminophen/isomethepten/dichloralphenazone 복합제 등도 시판된다. 가급적 단일 성분의 진통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 항구토제

편두통의 흔한 동반 증상은 메스꺼움, 구토이다. 항구토제를 편두통 특이적 약물과 같이 투여하면 구역 증상이 감소되어 약물의 효과가 상승한다. 보통 metoclopramide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 아편유사제

아편유사제는 트립탄에 비해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약물 의존 위험성이 높아서 급성기 치료 약물로 우선 사용되지는 않는다. Tramadol, acetaminophen 복합제와 codeine/acetaminophen/ibuprofen 복합제가 판매된다.

· 특이적 약물

편두통에 특이적으로 효과가 있는 약물로는 triptan과 ergot가 대표적이다.

– 트립탄

트립탄은 임상 근거가 가장 확실한 편두통 급성기 치료약물이다. 국내에는 sumatriptan, zolmitriptan, almotriptan, naratriptan, frovatriptan이 출시되었다. Almotriptan은 소아에게 유일하게 사용이 허가된 약제이다. Triptan은 대개 안전하지만 혈관수축 작용에 대한 우려로 반마비편두통, 뇌기저형편두통, 허혈성뇌졸중과 심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악성 고혈압 환자에서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 에르고트

Ergotamine은 복용 후 구역이 심한 단점이 있다. 단순 진통제나 카페인, 항구토제 등을 복합한 약물이 많다. Ergot는 구역과 구토를 악화시키고 혈관폐색의 부작용이 많아서 절대 과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혈관질환이나 고혈압, 간질환,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 게판트와 디탄

기존에 편두통 특이 약물로 사용하던 triptan탄 계열의 혈관수축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약물로 gepant 계열의 rimegepant, ubrogepant, zabegepant와 ditan 계열의 lasmiditan이 출시되었다. 다만 triptan에 비해 고가이며 상대적으로 치료 이익이 월등히 높은 것이 아니므로 심혈관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해 볼 수 있다.

▶ 예방치료

편두통 예방치료의 목적은 편두통 발작을 조절하고 편두통으로 인한 장애 정도를 줄이며 급성기 약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예방약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2~3개월 이상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 경구제

베타차단제, 칼슘통로차단제, 삼환계 항우울제, 항경련제가 있다. Propranolol, timolol, divalproex sodium/valproate sodium, topiramate, metisergide 등이 있다.

◆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A와 CGRP 억제 단클론항체인 galcenezumab, fremanezumab, erenumab, eptinezumab이 있다. 보툴리눔 독소는 만성 편두통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약물이다. 항 CGRP 단클론항체는 편두통의 병태생리에 기반한 표적 치료로 기존의 예방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편두통에 효과적이다.



일상생활에서의 예방

▶ 편두통 유발요인 제거

편두통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스트레스, 수면 과다 또는 부족, 여성의 생리, 계절 변화, 피로, 음식물(와인, 맥주, 커피, 차, 콜라, 치즈, 핫도그, 햄) 등 유발요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 편두통 발작을 일으켰던 음식을 피하고, 다른 원인이 편두통 발생과 관련이 있었다면 역시 피하는 것이 좋다. 두통 일기를 쓰면 유발 요인을 파악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평소 스트레스와 수면 조절,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 특히 카페인과 과다 섭취, 과도한 빛이나 소음 등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긴장을 완화하고 편두통 예방에 도움이 된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단,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한 후 천천히 시작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심한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

▶ 에스트로겐 용량 감소

피임약과 여성호르몬 대체제 등 에스트로겐 함유 약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여볼 수 있다.

편두통을 예방하는 생활 규칙



규칙적인  
식사습관



두통 유발 성분  
(MSG, 아스파탐, 아질산염)  
함유 음식 피하기



커피는 하루  
2잔 이하



적절한 수면  
시간 유지



올바른 자세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하기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두통학회

정 석 원(67회)



## 약학연구자로서의 첫 발을 떨 수 있게 해 주신 고마운 선배님 - 중약동 장학금 수혜로 학업을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익명의 선배님께서 기부해주신 장학금 덕분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67회 정석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요즘 동문 선배님들께서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졸업 후 약학대학 대학원의 석박사통합과정에 진학하여 열심히 학위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약리학 전공으로 대사성 간질환과 간암, 췌장암의 치료 타겟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하며 신약 개발 산업의 일원이 되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위취득 후에는 학문적으로는 대사성 간질환, 간암, 췌장암의 발병 기전과 치료 전략을 규명하는 연구자로서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가며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갖춘 연구자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귀국 후에는 약학대학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거나, 국내 제약사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신약개발 연구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교수의 길을 걷는다면 연구자를 길러내어 우리나라가 제약·의약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힘을 보태는 것이 제 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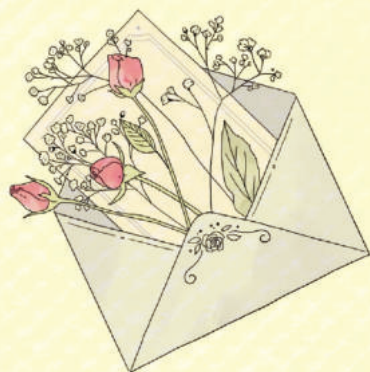
더 나아가 연구를 통해 얻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기술이전이나 창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고 싶습니다. 연구는 논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 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KAIST 이정호 교수님(소바젠)과 포항공대 성영철 교수님(제넥신)처럼 자신의 연구를 산업화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사례들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길을 본받아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장학금은 절대로 제가 잘나서 받는 상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받은 투자금이자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꿈꾸는 연구자의 모습은,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과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사람입니다. 제 꿈은 어쩌면 아직 멀고 커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곧 제 삶의 의미이고, 그 길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 그 꿈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저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중약동 장학금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익명의 선배님께서 기부해주신 장학금 덕분에 4년동안 전액 장학금과 소정의 생활지원금을 받으며 학부과정을 마칠 수 있었고 대학원과정 진학의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보다는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약학 연구자로서의 첫 발을 떨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의 연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간이 지난 후에는 후배님께 제가 받았던 사랑을 그 이상으로 돌려줄 생각입니다.

다시한번 익명의 장학금을 기부해 주신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선배님들, 사랑합니다!





이 승 재  
(약학부 2학년)



※ 이 글은 현재 약대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승재 (72회) 학생이 어려운 가정 사정하에 고생하던 중 동문회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온 것입니다.

## 배움의 기회에 감사드리며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저는 72기 후배, 2학년 이승재입니다.

배움의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신 어머니께서 혼자 가정을 이끌며 저와 중3 동생을 돌보셨습니다. 어머니 사랑에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해 무릎에 골괴사가 진행되고 연골이 파열되어서 지난 10월부터 수술 및 재활로 가정에 수 입이 없었습니다.

환경은 조건에 불과하고 사람은 나만의 길을 노력으로 개척하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배움이 즐거워서, 배울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기에 도전을 즐겼습니다. 1년 6개월동안 의료봉사 300시간, 사회약학 논문, 행정학/경제학 공부, NPO 인턴/대리, 과대표, 학생회, 기자단 등 기회가 보이면 도전했습니다. 도전이 이어질수록, 많은 멘토를 볼 수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넓은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정말 0이 된 이후로는 어깨가 무거워지고 행동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여유와 사랑 사이에 불신과 혈통음이 생겨났고 집이 편안한 장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제게 내미신 손은 마치 다음과 같은 말을 던지신 것 같았습니다.

“승재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지켜볼게, 도전하고 마음껏 배워봐.”

많은 성실한 학생 중에 제 꿈에 귀기울여 주시고 거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생이라는 것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즐겁게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와 같이 ‘건강한 하루’를 꿈꾸는 환우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약사가 될 것입니다. 300시간 의료봉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간 의료인프라 차이를 개선할 역할은 약사의 것입니다. 의약품 전주기를 공부하고 지역약국, 병원약국, 방문약료 등을 통해 약이 유통되는 경로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회약학을 공부하면서 self-medication을 실현할 방법으로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논문 본문을 완성하였습니다. 향후 DTx 제도 개선을 통해 DTx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간 의료인프라 차이를 줄이고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사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6년제로 그 어떤 학과 못지않게 많이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약대생, 약사가 환자의 혈압/혈당조차 체크해 줄 수 없습니다. 백신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는 약사가 주사제를 투약할 수 있어서 펜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투여대상자가 보건소나 병원에 몰리지 않고 지역약국을 하나의 의료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약대 커리큘럼에 주사제 투여 실습을 도입하고 성분명 처방 확대 등을 도모하여 약사가 약의 스승으로서, 환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2026년 상반기에 의료봉사를 기획하고 1인 가구, 농촌소외계층을 찾아가 복약습관을 점검하고 처방전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사, 약대생이 메디컬로 인정받고 환우와 마주보며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시작점을 만들 것입니다.

배움의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제 환경에 갇히지 않고 당당히, 중대 약대인으로서 제 꿈을 향해 당당히 도전하겠습니다.



## 신완균 박사(약학 '59), 발전기금 1억원 기부



약학대학 동문(59학번)인 신완균 박사가 4월 24일(수) 오후 2시 본관 총장실을 방문해 우리 대학 발전과 첨단공학관(205관) 건립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을 쾌척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상규 총장, 황광우 약학대학장, 최재오 대외협력처장, 김태암 약학대학 교학지원팀장, 신중범 대외협력팀장 등 우리 대학 관계자들과 약학대학 후배 재학생들이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완균 박사는 1959년 우리 대학에 입학해 약학 학사 및 석사 과정을 마친 후, 동덕여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65년 졸업 후 22년간 개인 약국을 운영하다 198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휴텍스제약에서 근무하며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구주제약 부회장으로서 다양한 의약품을 개발하며 한국 제약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2017년 은퇴 후 '후배들을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고, 이번 모교를 위한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신 박사는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지금껏 부모님과 학교, 회사 등 사랑을 받아만 왔던 것 같다. 자녀들도 모두 경제적으로 자립하였고, 모든 것이 감사한 생활의 연속이다. 인생의 줄업을 앞두고 사회와 모교를 위해 뜻깊은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상규 총장은 “신완균 박사님의 모교에 대한 큰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전달해 주신 발전기금은 우리 대학이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의미 있게 사용하겠습니다”고 말했다.



## 약학대학 동문회, 중앙대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부



지난 5월 8일 오후 1시, 본교 본관 3층 총장단 회의실에서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하이텍팜 김정수 대표)의 발전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박상규 총장을 비롯해 박광용 교학부총장, 최재오 대외협력처장, 황광우 약학대학장, 나동희 학부장, 황완균 전 동문회 부회장, 김인혜 여동문회장, 이종혁 동문회 사무총장 등 약학대학 동문회 관계자들과 약학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25대 약학대학 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수 대표는 본교 약학대학 26회 동문으로, 약학대학 졸업 후 1998년 주사제용 항생제 전문 기업 하이텍팜을 설립했다. 하이텍팜은 2021년 차세대 카바페넴계 에르타페넴을 미국에 수출하며 한국 제약업계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정수 동문은 “학교가 많이 발전해 아주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교가 꾸준히 성장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박상규 총장은 “우리 약대는 전통이나 역사에서 중앙대에서 가장 자랑하는 학과이며 총장으로 재임한 지난 1년 3개월 동안 발전기금 전달식이 가장 많이 열린 학과이기도 하다”며 “동문들이 한마음으로 기부해 주셔서 더욱 뜻깊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황광우 약학대학장은 “동문회에서 항상 후배들의 교육 환경이나 장학금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학교에서 좋은 학생들을 훌륭한 약사로 양성해, 그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대한 애정을 행동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재현 약학대학 학생회장은 “선배들께서 항상 저희를 위해 힘써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우리도 선배님들을 본받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약학대학 재학생들, 발전기금 기부



우리 대학 약학대학 재학생 모임인 '상남자'가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모교를 위한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이찬(19학번), 김정환, 김창겸, 남윤우, 박승훈, 박준호, 손성환, 송승훈, 송현빈, 신범수, 신재민, 허우택(21학번) 등 12명의 재학생이 지난 5월 21일(수)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대외협력처에 기부금 110만원을 전달했다.

'상남자'는 함께 공부하며 학교를 다니는 친목 모임이다. 이들은 "평소 학교를 다니며 학교에서 시설지원, 장학금 등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에, 재학생일 때 학교를 위한 나눔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부에 참여했다"고 기부 동기를 밝혔다. 최재오 대외협력처장은 "귀한 생각으로 해준 기부에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성숙한 마음이 앞으로 더 발전해 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우리 대학 대학원 동문회, 창립 50주년 기념 장학금 전달식 성료

지난 9월 24일, 우리 대학 대학원 동문들이 서울캠퍼스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University Club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동문회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오랜만의 재회를 통한 교류와 후배 장학금 전달식으로 의미를 더했다.

손의동 대학원 동문회장과 김이경 대학원장을 비롯해 김종훈(제4대 회장), 이명재(제6대 회장), 김창중(제8대 회장), 안중근(제9대 회장) 고문 등 주요 인사와 동문 60여 명이 참석했다.

손의동 회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대학 대학원 동문회의 역사와 전통을 되짚고 발전 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2명이 장학금에 지원해 3.6대 1 경쟁률을 뚫고 20명이 선발됐다"며 장학생과 지도교수를 축하했다. 이어

"앞으로 장학사업을 확대해 후배들의 학문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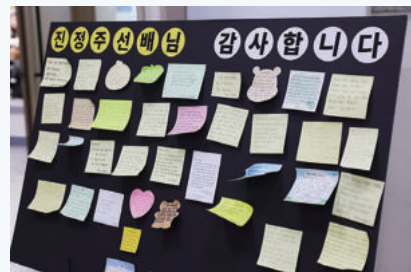
박상규 총장은 우리대학교 대학원의 역사와 성과를 되짚으며 대학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953년 종합대학 승격 이후 5만 명 이상 석·박사 학위자를 배출한 점, 2020년 BK21 4단계 사업 15개 사업단 수주, 2021년 국내 10개 시 대학원 중 하나 선정 등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중앙대 대학원 출신들이 전국 주요 대학 교수로 임용되는 등 학문적 위상을 높였음을 전했다. 끝으로 동문들과 지도교수들, 동문회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장학금 규모 확대를 위해 대학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로패와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되었으며, 행사는 동문들의 덕담과 격려, 모교 교가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재회를 기념하며 서로의 건강과 학문 성취를 기원하고, 후배들의 미래를 응원하며 50주년 기념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를 기념하며 서로의 건강과 학문 성취를 기원하고, 후배들의 미래를 응원하며 50주년 기념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 진정주 박사, 모교에 발전기금 4억 100만원 쾌척



진정주 동문 발전기금 전달식 및 장학기금 수여식이 10월 28일 수요일 301관 멀티미디어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규 총장, 이창규 행정부총장, 황광우 약학대학 학장, 최재오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해 진정주 동문과 다수의 장학기금 수여자 학생이 참석했다. 진정주 동문은 이번 행사에서 총 4억 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기부금 1억 100만 원 ▲205관 건립기금 3억 원을 기탁했으며, 이를 포함한 누적 기부금은 30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진정주 동문은 “씨앗과 같은 여러분의 노력이 머지않아 빛나는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장학생 대표들은 “진정주 동문님의 따뜻한 마음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며, 선배님의 나눔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상규 총장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마음을 전해주시는 진정주 동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 장학금이 학생 여러분의 꿈을 키우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진정주 동문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90학번으로 『아파도 괜찮아』, 『내 몸이 웃는다』 등 약과 건강, 심리에 관한 저서를 집필하고, 유튜브 채널 ‘진약사톡’과 ‘10분성경톡’을 운영하며 건강과 마음의 회복,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Commit to it



내가 가진 것을 내주는 것은  
그것만 배움이다

나는 헌신하는 것은  
진정한 배움이다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 2025회계년도 회비내역 2025년 1월 ~ 2025년 11월

| 회장단회비 |                                                                                                                                                                                    | 600,000원          |
|-------|------------------------------------------------------------------------------------------------------------------------------------------------------------------------------------|-------------------|
| 6회    | 권송상, 김기형, 김안식, 김영후, 김윤수, 김정수B, 김학철<br>나종우, 박병섭, 박상철, 박정래, 박주돈, 반수호, 선우일원<br>손영상, 심상수, 양승훈, 유영한, 윤광중, 윤용혁, 이근주<br>이영준, 이종량, 정민교, 조병호, 조한미, 진희억, 최민규<br>최옥숙, 최태영, 하재일, 한갑현, 황완균, 황원선 | 32회 정선종           |
| 27회   | 곽나윤, 박영달                                                                                                                                                                           | 33회 이정수, 조호원      |
| 28회   | 구영삼, 김희식, 이해룡, 이영주, 양덕숙                                                                                                                                                            | 34회 한일권, 민성일      |
| 29회   | 이종옥, 이강현, 우종오, 장승학, 류형준, 김인혜                                                                                                                                                       | 35회 이경선, 김진       |
| 30회   | 최병태, 김광식, 최병원                                                                                                                                                                      | 36회 임기민, 임성호, 홍성원 |
| 31회   | 이혜정, 심명섭                                                                                                                                                                           | 38회 김병욱           |
|       |                                                                                                                                                                                    | 39회 한은경           |
|       |                                                                                                                                                                                    | 40회 최성철           |
|       |                                                                                                                                                                                    | 41회 김정민, 이종혁      |
|       |                                                                                                                                                                                    | 62회 김준하           |

| 이사회비 |                                          | 150,000원 |                         |
|------|------------------------------------------|----------|-------------------------|
| 4회   | 김현용                                      | 27회      | 최충식, 민병희, 오순용, 김덕진, 현기원 |
| 6회   | 유상열, 안인혁, 박정배, 유관열, 임완호                  | 28회      | 신영무, 이병천, 전금용, 김유곤      |
| 8회   | 이백천, 조의환, 허근희, 박번일, 한석원, 박재웅             | 29회      | 한일룡, 박웅삼, 김은진, 엄재우, 유종운 |
| 9회   | 이근배                                      | 30회      | 김성배 (김해승), 김혜수          |
| 10회  | 심수일, 정영기, 김명민, 유정사                       | 31회      | 윤희정, 이미자, 오세정, 변동성      |
| 11회  | 고승하, 김창중, 이철규                            | 32회      | 유명식, 정영복, 이경우           |
| 12회  | 노덕재, 염윤기, 조택상, 심재웅, 남기탁                  | 33회      | 김영재                     |
| 13회  | 구연홍, 최창엽, 최호순, 박동규, 안병식, 윤해선             | 34회      | 이선민, 문정인                |
| 14회  | 조길도, 김동원, 구종모, 김윤국, 김종열, 조병화             | 35회      | 임중식, 손은경, 오창현, 김희성      |
| 16회  | 최광식, 이은술, 백승복                            | 36회      | 김정란, 김명호, 변익주, 정순철      |
| 17회  | 장재인, 전상훈, 선우영환                           | 37회      | 안의성, 박미경                |
| 18회  | 김기명, 조중형                                 | 38회      | 이강국, 김인성, 최은영           |
| 19회  | 임종철, 김경오, 윤건섭, 장호성                       | 39회      | 방근철, 박성훈, 민필기           |
| 20회  | 권오규, 김영식, 류화승, 문주기, 이영희, 김현태             | 41회      | 구본웅, 천경석, 최진희           |
| 21회  | 한찬수, 김수배, 김중효                            | 48회      | 차자현                     |
| 22회  | 오황영, 강희윤, 손의동, 천경호, 김홍진, 이명옥, 한만영<br>최광훈 | 53회      | 김영민                     |
| 23회  | 서동철, 박희용, 홍순옥, 강한구, 김수중, 이계석             | 54회      | 최윤정                     |
| 24회  | 이규삼, 조종래, 이광섭, 장규옥                       | 57회      | 서해준                     |
| 25회  | 조순현, 김완기, 이광인, 최두주, 이현수, 고성권, 김광호<br>김희섭 | 58회      | 김태수                     |
|      |                                          | 65회      | 박보연, 신호은                |

| 일반회비 |                                   | 30,000원 |                                   |
|------|-----------------------------------|---------|-----------------------------------|
| 9회   | 권태섭, 김광자, 김학원, 김학진, 노신희, 이병호, 이해자 | 31회     | 김향수, 류문숙, 오대근, 왕경란, 우광익, 유두중, 윤종근 |
| 10회  | 장성현, 조병일, 천진호, 최보혜, 최인자, 하동현, 한정희 |         | 이동익, 임기상, 한영석                     |
|      | 전광석                               | 32회     | 김정중, 안승희, 임형미, 정현삼                |
| 11회  | 구자억, 심재관, 안홍신, 양계창, 이명옥, 전창환, 조명숙 | 33회     | 김병호, 박영신, 소정우, 윤종배, 임양순           |
| 12회  | 김귀영, 김대건, 김송배, 김신우, 김일영, 오형철, 옥정남 | 34회     | 김숙경, 김영미, 김용수, 노영화, 백희숙, 정성아, 홍순필 |
|      | 우홍길, 이수웅, 이수우, 이원주, 이정희, 장광웅, 정용오 | 35회     | 박민녕, 허진욱                          |
|      | 정재균, 조병숙, 최창목, 황순오                | 36회     | 김영민, 안영윤, 이태건, 정현희                |
| 13회  | 김태중, 이우식, 전인식, 홍성구, 황근성           | 37회     | 서승희, 정병욱, 한덕희                     |
| 14회  | 류효성, 박찬임, 전봉선, 전영표, 정진모, 홍성철      | 38회     | 권청진, 김수규, 박종일, 윤상배                |
| 15회  | 김형수, 박인호, 송현숙, 조두섭                | 39회     | 이용준, 전병선                          |
| 16회  | 김광길, 박상환, 박종애, 윤영위, 조연식, 최종호      | 40회     | 안지영, 정병찬, 황세은                     |
| 17회  | 김상집, 김재천, 심상근, 신승백, 양희익, 이동우, 이희정 | 41회     | 김유강, 박영진, 신유미, 안은진, 이명희, 이호섭      |
|      | 인익진, 주완표, 최해광                     | 42회     | 김록원, 송미옥, 임태규, 최지혜, 황인영           |
| 18회  | 남애숙, 문형진, 박계환, 박인환, 양만기, 여운숙, 오영선 | 43회     | 김중호, 박성남                          |
|      | 육득윤, 임태영                          | 44회     | 김수길, 양미선, 유경미                     |
| 19회  | 고문찬(고재무), 신성희, 장명섭                | 45회     | 김지하, 조동환, 조창균, 홍정은                |
| 20회  | 김홍진, 박영근, 방금숙, 배성진, 송열호, 우영각, 이극선 | 46회     | 강병균, 이동훈                          |
|      | 장영철, 최석중, 최용철, 홍철수                | 47회     | 손형운                               |
| 21회  | 강성무, 김민숙, 김진자, 노재하, 백기홍, 송주식, 송진용 | 50회     | 강지연, 박주현, 우종식                     |
|      | 신길득, 신종화, 안병현, 우건상, 이상준, 이승호      | 51회     | 박경태, 박병언                          |
| 22회  | 강명희, 김인규, 김태일, 이영욱, 장용운, 정진호, 정태화 | 52회     | 천세웅                               |
| 23회  | 강호영, 김봉래, 김재한, 송명숙, 이원길, 임창영, 제갈희 | 53회     | 손예성, 임효진                          |
|      | 최경선, 한병철                          | 54회     | 고명수, 김정호                          |
| 24회  | 강창주, 변영건, 신용철, 안병권, 안용태, 양성삼, 윤세형 | 56회     | 변혜영, 서지영                          |
|      | 이형수, 임무호, 최종정, 함한성, 홍용기           | 58회     | 고민혜, 한주희, 김주연                     |
| 25회  | 권세형, 김두수, 김선열, 이승정, 조석현, 한덕화      | 60회     | 김희정, 안민지, 정재영                     |
| 26회  | 박승순, 손영득, 신현동, 이순아, 임완순           | 61회     | 양대형, 정주호                          |
| 27회  | 김재식, 김창식, 문연숙, 염승호, 전명수, 최경희      | 62회     | 김익석                               |
| 28회  | 견주남, 김경완, 김미경, 김형준, 오상기, 조한균, 조효금 | 63회     | 김세민, 이보람                          |
| 29회  | 권혁자, 김선희, 김인범, 유인석, 장우성           | 64회     | 성가은                               |
| 30회  | 강성희, 고은숙, 김영림, 문미례, 박병미, 박복자, 손은실 | 65회     | 강지선, 박기현, 김태향                     |
|      | 이경숙, 조민숙, 최현희, 홍염미                |         |                                   |

#### 평생일반회비

500,000원

김동완(7회), 조근행(7회), 손광자(9회), 심재창(12회), 박광자(12회), 이수걸(13회), 김태성(17회), 김관식(25회),  
김기형(26회), 문현미(28회), 이경준(32회), 박경록(33회), 진정주(38회), 구영준(41회), 이지윤(46회), 김태영(55회), 박창국(66회)



## 2025-1학기 약학대학 동문장학금 수혜자



| 번호 | 장학금명         | 장학금액(원)   | 학년 | 성명  |
|----|--------------|-----------|----|-----|
| 1  | 본동문회(청호 손동헌) | 2,000,000 | 4  | 김연우 |
| 2  | 본동문회(김명섭)    | 2,000,000 | 5  | 이자연 |
| 3  | 본동문회         | 2,000,000 | 3  | 박주원 |
| 4  | 본동문회         | 2,000,000 | 5  | 박진서 |
| 5  | 본동문회         | 2,000,000 | 3  | 이승수 |
| 6  | 본동문회         | 2,000,000 | 4  | 이유진 |
| 7  | 본동문회         | 2,000,000 | 4  | 임서연 |
| 8  | 본동문회         | 1,000,000 | 2  | 이승재 |
| 9  | 본동문회         | 1,000,000 | 6  | 천승희 |
| 10 | 여동문회         | 1,000,000 | 5  | 문경연 |
| 11 | 본동문회         | 1,000,000 | 5  | 김주연 |
| 12 | 본동문회         | 1,000,000 | 4  | 이도준 |
| 13 | 본동문회         | 1,000,000 | 5  | 임상욱 |
| 14 | 본동문회         | 1,000,000 | 3  | 이시현 |
| 15 | 여동문회         | 1,000,000 | 6  | 서수아 |

| 번호  | 장학금명       | 장학금액(원)    | 학년 | 성명  |
|-----|------------|------------|----|-----|
| 16  | 26회동기회     | 1,000,000  | 5  | 김창겸 |
| 17  | 26회동기회     | 1,000,000  | 5  | 김소은 |
| 18  | 28회동기회     | 1,000,000  | 4  | 황송흙 |
| 19  | 28회동기회     | 1,000,000  | 4  | 오정민 |
| 20  | 생약반        | 1,000,000  | 5  | 소은수 |
| 21  | 생약반        | 1,000,000  | 5  | 김예찬 |
| 22  | 큐엘파마-칼라무스  | 1,500,000  | 5  | 윤시원 |
| 23  | 큐엘파마-칼라무스  | 1,500,000  | 6  | 김규연 |
| 24  | 약품물리화학교실   | 1,000,000  | 5  | 김무관 |
| 25  | 손의동명예교수장학금 | 1,500,000  | 6  | 유지석 |
| 26  | 병태생리학교실    | 1,000,000  | 5  | 김도형 |
| 27  | 병태생리학교실    | 1,000,000  | 5  | 이나연 |
| 28  | 약제반        | 1,000,000  | 5  | 윤정빈 |
| 29  | 약제반        | 1,000,000  | 5  | 장혜정 |
| 합 계 |            | 37,500,000 |    |     |



## 2025-2학기 약학대학 동문장학금 수혜자



| 번호 | 장학금명    | 장학금액(원)   | 학년 | 성명  |
|----|---------|-----------|----|-----|
| 1  | 본동문회    | 1,500,000 | 4  | 최은비 |
| 2  | 본동문회    | 1,500,000 | 3  | 노현수 |
| 3  | 본동문회    | 1,500,000 | 2  | 이승재 |
| 4  | 본동문회    | 1,500,000 | 4  | 이나연 |
| 5  | 본동문회    | 1,500,000 | 5  | 이성진 |
| 6  | 본동문회    | 1,500,000 | 4  | 장미나 |
| 7  | 본동문회    | 1,500,000 | 4  | 이진영 |
| 8  | 본동문회    | 1,500,000 | 2  | 박은서 |
| 9  | 본동문회    | 1,000,000 | 5  | 강민혁 |
| 10 | 본동문회    | 1,000,000 | 5  | 한동건 |
| 11 | 본동문회    | 1,000,000 | 2  | 박서연 |
| 12 | 본동문회    | 1,000,000 | 5  | 원기수 |
| 13 | 본동문회    | 1,000,000 | 5  | 임혜나 |
| 14 | 본동문회    | 1,000,000 | 4  | 고다은 |
| 15 | 본동문회    | 1,000,000 | 5  | 문경연 |
| 16 | 여동문회    | 1,000,000 | 6  | 김소연 |
| 17 | 26회동기회  | 1,000,000 | 6  | 조수만 |
| 18 | 26회동기회  | 1,000,000 | 5  | 송담이 |
| 19 | 28회동기회  | 1,000,000 | 1  | 박세희 |
| 20 | 28회동기회  | 1,000,000 | 6  | 김현지 |
| 21 | 39회동기회  | 1,000,000 | 4  | 김연우 |
| 22 | 부산지부    | 1,000,000 | 4  | 김지영 |
| 23 | 생약반     | 1,000,000 | 3  | 지승헌 |
| 24 | 생약반     | 1,000,000 | 3  | 이의영 |
| 25 | 병태생리학교실 | 1,000,000 | 4  | 김세현 |

| 번호  | 장학금명       | 장학금액(원)    | 학년 | 성명   |
|-----|------------|------------|----|------|
| 26  | 병태생리학교실    | 1,000,000  | 4  | 이은호  |
| 27  | 약품물리화학반    | 1,000,000  | 5  | 정해리  |
| 28  | 약제반        | 1,000,000  | 4  | 정시엽  |
| 29  | 약제반        | 1,000,000  | 4  | 정예린  |
| 30  | 손의동명예교수장학금 | 1,500,000  | 3  | 남가빈  |
| 31  | 손의동명예교수장학금 | 1,500,000  | 4  | 이도영  |
| 32  | 큐엘파마       | 1,500,000  | 6  | 조건희  |
| 33  | 큐엘파마       | 1,500,000  | 6  | 박세희  |
| 34  | 칼라무스       | 1,000,000  | 4  | 정예린  |
| 35  | 칼라무스       | 1,000,000  | 4  | 유연중  |
| 36  | 칼라무스       | 1,000,000  | 1  | 심완이  |
| 37  | 칼라무스       | 1,000,000  | 1  | 김서윤B |
| 38  | 칼라무스       | 1,000,000  | 3  | 이희윤  |
| 39  | 홍보대사(파람)   | 500,000    | 1  | 김규리  |
| 40  | 홍보대사(파람)   | 500,000    | 3  | 남서윤  |
| 41  | 홍보대사(파람)   | 500,000    | 4  | 노경준  |
| 42  | 홍보대사(파람)   | 500,000    | 2  | 박정민  |
| 43  | 홍보대사(파람)   | 500,000    | 5  | 박하얀  |
| 44  | 홍보대사(파람)   | 500,000    | 2  | 서정원  |
| 45  | 홍보대사(파람)   | 500,000    | 5  | 윤시원  |
| 46  | 홍보대사(파람)   | 500,000    | 1  | 조한영  |
| 47  | 홍보대사(파람)   | 500,000    | 3  | 지승헌  |
| 48  | 홍보대사(파람)   | 500,000    | 4  | 최민주  |
| 합 계 |            | 49,000,000 |    |      |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간단히 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1964년 충주 성공회 견진성사 받고 중앙대 약대, 현 방배동에서 즐건약국 운영 중, 서울 성공회 정동 주교좌 성당에서 1977년도 혼배성사 자녀 3명 모두 대성당에서 혼배, 그러나 코로나 팬더믹 이후 성당의 접근성(미사 참여 등) 어려워졌으며 그동안 가족이 오랫동안 구원하던 천주교인으로 이의 신앙생활을 드디어 성령의 지혜로 인하여 하게됨을 감사 드립니다.

미사 참여는 방배동 주님 부활 성당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다를 닦아 거세게 파도 치겠지만 신앙의 키를 놓지 않으면 항구에 닿는 소명 이룰 수 있다는 오늘의 단상으로 끝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祖父 때 부터 선택의 여지없이 지켜오던 성공회에서 삼위일체 하느님 믿음의 本鄉인 천주교로의 歸依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박희용(23회)  
편집위원

포르투갈 수도인 리스본에서 버스로 1시간 반 정도 가면 파티마가 나온다. 인구 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1917년 목동들이 성모 발현을 목격하고 이후 바티칸의 공식 인정을 받아 지금은 매년 수백 만명의 관광객이 ‘파티마의 기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는 성지순례 명소가 되었다.

우리 일행을 인솔하던 가이드가 신심 가득한 해설에 이어 떠날 때 추첨을 하여 작은 선물을 주겠다며 휴게소 입장권을 한 장씩 나눠주었다. 오체투지의 자세로 성모발현 예배당 주위를 도는 순례자들의 경건함에 기대어 비신자이지만 가족들의 건강을 비는 촛불도 조용히 봉헌했다.

다음 행선지인 나자레로 버스가 출발하자 가이드가 약속대로 입장권 번호로 추첨을 했는데, 세상에 바로 그 번호가 내 입장권에 그대로 각인되어 있지 않은가? 평생 경품 당첨과는 담쌓고 사는 우리에게 전혀 기대하지도 않은 순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이야말로 파티마의 작은 기적이 아니냐고 집사람과 흔쾌히 합의를 했다. 선물은 당연히 고가의 무엇이 아닌 흔히 관광객용으로 판매하는 천주교 묵주였다. 순간 한참 전 심정지로 위기를 넘기고 지금도 재활에 힘쓰고 있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고교 선배 얼굴이 떠올랐고, 귀국하여 묵주는 당연히 선배에게 전달해 드렸다. 치유에 효험이 있기를 비는 묵주 기도와 함께!

김만석(43회)  
사무총장

갑작스럽게 동문회 사무총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마음의 준비 조차 안된 상황이긴 하지만, 늘 마음에 가지고 있던 학교 혹은 동문회에 대한 막연한 부채의식을 갚을 기회라고 각하며 겹쳐히 받아들인다.





Global · R&D 선도

한미약품

# 도전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모두가 쉬운 길을 택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만을 개척했던 한미약품!  
인류건강을 위한  
혁신신약 연구개발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Your NOVA LIFE partner,  
We light up your NOVA LIFE

# 노바렉스 NOVAREX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원료를 개발, 생산하는  
대한민국 1등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입니다.  
첨단화된 기술력과 생산설비로 품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NOVAREX 고객사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송공장 (본사, 생명과학연구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  
오창공장 충청북도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64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2층

OEM-ODM 상담문의 070-4852-2299 / novarex@novarex.co.kr

# BIM KOREA AESTHETICS

## HITOX 하이톡스

제주에서 만든 보툴리눔 독신 제제



## Lilied 릴리이드

수분 가득 히알루론산



## VIVLE 바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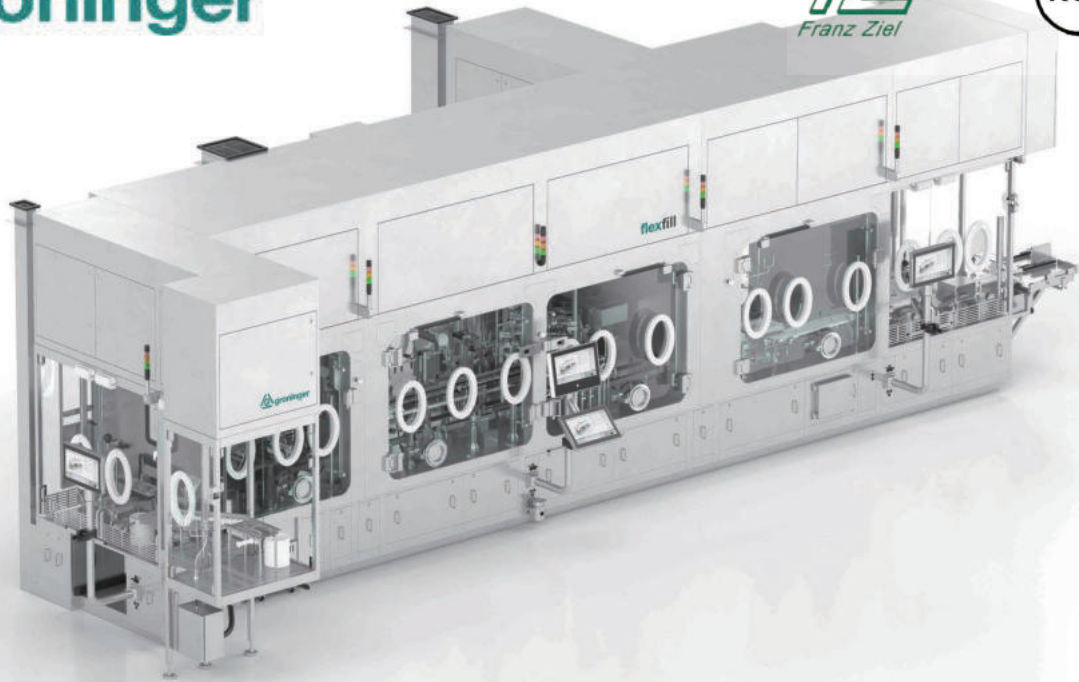
DCA의 바이블:  
지방세포파괴 주사의 새로운 기준



## Renefil 르네필

PN과 가교HA, 리도카인의 만남





## Groninger의 최첨단 무균 충전기로 제약 생산혁신! 안전하고 효율적인 충전 솔루션!

소규모부터 대규모생산까지 맞춤형 무균 충전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Smart fill, Safe transfer 시스템 등을 통해 제품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Isolator 및 RABS 시스템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합니다.

모듈러 시스템으로 빠른 납기가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제약 공정을 최적화 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

<http://www.innotechsys.co.kr/>

(주)이노텍 시스템

전화 : 031-434-7007 / 010-9152-2169

이메일 : jjlim2169@innotechsys.co.kr

**Flexibility**  
meets  
**Perfection**  
Your key to fast success.



**8 month**  
delivery time

**flexfill**







# 하이텍팜

High Tech Pharm

미국 FDA / 유럽 CEP 인증

## “건강증진에 공헌하여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기업”

(주)하이텍팜은 세계 최고의 카바페넴계 주사제용 항생제 원료의약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www.caupharma.com**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0-1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이메일 admin@caupharm.com